

市·道 행사 홍보 손잡았다

경북방문의 해·'세계육상선수권' 유치 현수막·입간판·전광판 설치 등 상부상조

대구시청 본관 벽에 '어서오이 소! 2007 경북방문의 해'라고 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가 지정한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북도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경북방문의 해는 경북도의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대구시청 본관 벽에 경북방문의 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시내 전광판과 지하철에 경북방문의 해 홍보물을 무

료로 게시하고, 방문의 해 포스터와 스티커의 대구지역 배포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청 입구에는 '600만 시·도민이 함께 기원합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라는 대형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유치를 위해 대구시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대구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유치를 지원하는 입간판까지 도청 입구에

설치했다.

경북도의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대구시 현안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도청 입구에 내걸었다는 것도 시선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추진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대구시청 본관 벽에 경북방문의 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왼쪽). 경북도청 입구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를 지원하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